

광주시, 올해 에너지신산업 도시 조성 본격화

산학연 클러스터 구상 마무리

친환경발전량 20%까지 확대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지원

광주시가 올해 미래 3대 먹거리 산업 가운데 하나로 집중 육성중인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기관·배후 단지 등이 들어설 에너지신산업 메카도시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국가산단은 지난 2016년 12월, 지방산단은 지난해 12월 각각 착공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25일 에너지산업의 연구 기반시설인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설립 직후, 에너지산업 특별법 국회 통과 등 그

토대를 구축하기도 했다.

시는 우선 에너지신산업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클러스터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에너지밸리를 확장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에너지변환, 에너지저장시스템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체와 산학연이 선순환구조의 산업 집약체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총 330만㎡를 산업용지, 교육용지, 연구용지로 구분해 조성하고 있으며,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1월중 기본구상을 마무리하면 국가사업으로 건의해 부처 타당성 용역을 거쳐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직류(DC) 기반 에너지산업 플랫폼도 구축한다. 직류에 대한 수요 증가로 배전시스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기에너지 기

반시설을 교류에서 직류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정책 및 한전의 2023년 직류(DC) 배전 상용화에 대한 시의 선제적 대응이다.

레독스플로우전지(RFB) 소재부품 기업 성장지원도 공을 들이고 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리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리튬이차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용량의 전지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한 사업이다.

에너지산업의 기술개발, 체험·실증, 시장창출을 위한 특화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에너지와 문화가 어우러진 에너지파크 조성에 80억원, 총장로 도시경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EV충전소와 홍보관을 갖춘 배전스테이션구 축에 300억원, 대학내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사

업모델을 창출하는 스마트에너지캐퍼스 실증사업에 150억원, 전기차 충전스테이션용 마이크로그리드 운용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에 69억원 등을 투입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지원 사업으로 발코니형 빛고를 발전소 보급과 태양광을 설치하는 주택지원사업, 노후 기계식 전력량계를 교체하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제로에너지빌딩 실증사업,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타 지자체(전북) 경제협력관 2단계 사업도 추진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의 안정적인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함으로써 에너지밸리를 더욱 구체화하고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어릴 적 ‘얼리 어답터’ 여든까지 간다”

윤장현 시장, 4차 산업혁명 인재교육 강조

“광주 학생들은 다른 어느 지역 학생보다 일찍 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깨닫고, 미래 트렌드를 읽어 대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윤장현(사진) 광주시장이 최근 광주 학생들이 얼리어답터(early adopter)가 돼도록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간부회의, 부서업무 공유, 각종 간담회 등에서 “학생들에 대한 급식이 중요한 것처럼 ‘지혜급식’도 중요하다”며 이를 반복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이같은 지론은 실제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윤 시장의 지시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강의를 실행한다. 27일 국립과학관에서 열리는 강의에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60명과 부모 60명이 참여해 전문가 강연, 첨단과학기술 전시, 코딩체험교육 등이 진행되며 2월 중에 한 차례 더 진행된다. 광주과학관에서는 지난 20일부터 2월 24일



까지 매주 토요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과학영재육성 특화 교육 프로그램인 ‘인공지능 랩’도 운영하고 있다.

윤 시장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미래세대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조하며 ‘얼리 어답터’란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얼리 어답터는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이 쏟아지는 디지털시장에서 기술 이해도가 빠르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으로 무장돼 최초로 생산된 제품과 신기술을 남보다 먼저 사용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시 관계자는 “광주가 에너지밸리, 친환경자동차 등을 미래 첨단산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지역의 젊은 인재”라며 “낯선 미래 기술의 변화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광주시는 23일 오후 시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시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등 13개 협업부서와 5개 자치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민안전실장 주제로 ‘한파·강설 대비 긴급 협업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한파·폭설 대비 돌입

5개구·소방본부 합동 회의

광주시는 24일부터 강력한 한파와 강설이 예보됨에 따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서 협업을 통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시는 소관 부서별로 기상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기상청이 한파 및 대설특보를 발령할 경우 시민안전실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우선 영하 10도의 강력한 추위가 예보된 만큼 방송사, 시·구 홈페이지, 모바일 광주앱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한파 발생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등을 홍보한다.

이와 함께 시 소방안전본부와 자치구 소방서를 중심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출동, 긴급구조 등 소방기능을 강화해 화재에 대응한다. 노인돌봄비를 활용한 취약계층 관리와 경로당 난방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북구, 매주 화요일 무료 건축상담실 운영

광주시 북구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각종 건축문제 등을 해결해 주기 위한 무료 건축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북구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북구청 건축과에서 광주건축사회의 재능기부 건축사로 추천받은 전문건축사 20명이 참여하는 ‘무료 건축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무료 건축상담실’은 전문지식이 부족해 건축과정의 소요비용, 대처방안 등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주거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북구는 주민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건

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인허가 처리절차 ▲건축공사에 따른 행정절차 및 관계법령 ▲무단증축 등 위법건축물 행정조치 등 건축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상담건축사는 광주건축사회에서 추천받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건축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주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예정이다.

전문건축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북구청 건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예약(062-410-6820)하면 된다.

／김용희기자 kimyh@

동적골·푸른길공원 공중화장실 신축

동적골 산책길(광주시 동구 운림동)과 푸른길공원에 공중화장실을 새로 신축된다.

23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시비와 구비 등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운림동 773번지에 다음달까지 공중화장실이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신축 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도 갖춰 장애인과 보행약자들의 편의가 고려됐다.

또 동구 광명명소이차 주민쉼터 자리잡은 푸른길 공원에도 시비와 구비 등 1억 5000만원을 들여 오는 3월까지 공중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이다.

무등산국립공원과 인접한 동적골 산책로는 수려한 경치, 철쭉꽃밭 등 다양한 볼

거리와 각종 운동기구를 갖춘 체육공원이 있어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공중 화장실이 1개뿐이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푸른길공원도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지만 공중화장실이 부족해 한참을 걸어야하거나 인근 상가 등을 이용해야했다.

동구는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를 위해 화장실 청소를 전담할 관리 근로자를 선발·운영할 예정이다. 근로자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2~4시간 단격적으로 근무하며 담당 화장실 청소와 시설물을 관리하게 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유통 식재료 방사능에 안전”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마트, 도매시장 등에 판매되거나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등 356건을 선별해 방사능 안전성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 원전사고 등으로 인한 먹거리 방사능 오염 우려와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많이 구입하는 수산물 171건, 농산물 86건, 가공식품 79건, 축산물 20건을 대상으로 고순도 게르마늄감마핵종분석기를 이용해 요오드, 세슘 등 방사성 물질 잔류 여부를 정밀 검사했다.

검사 대상 중 고등어, 삼치, 갈치 등 다 소비 수산물에 전체 품목의 48.0%가 가장 많고, 원산지별로는 국내산이 124건,

러시아 15건, 중국13건, 일본 8건, 노르웨이와 베트남이 3건씩, 대만과 미국이 2건씩, 페루 1건으로 수입산이 총 47건을 차지했다.

검사 결과 354개 제품에서 방사능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수입산 블루베리 1건과 견과류가공품 1건에서만 세슘이 1Bq/kg씩 검출됐지만, 이는 안전기준(100Bq/kg 이하)의 1/100 수준이다.

또 광주 인근 한빛원전과 인접 지역의 농산물과 도축장 축산물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방사능 안전성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판정됐다.

방사능 정밀 검사결과는 연구원 홈페이지 ‘방사능안전관리’에 즉시 게시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무선 송수신 장치 특허 획득

광주도시철도공사는 23일 “최근 ‘철도사고 방지를 위한 상황전파용 무선 송수신 장치’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16년 서울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스크린도어 등 선로변 작업자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연구에 돌입했으며, 전국 철도기관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무선 송수신장치 개발에 성공했

다. 이번에 고안된 철도사고 방지 무선 송수신 장치는 열차와 선로 작업자간의 접근여부를 서로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며, 유사시 열차가 자동 제동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김성호 사장은 “이번 결과물이 전국의 실제 현장에서 실용화 되도록 유관기관과의 기술협력이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평택시 토지분양 (오픈)

▶ 삼성전자 – 120만평

▶ LG전자 – 110만평

▶ 송탄역/진위역 5분

▶ 미군기지

▶ 평택 항

▶ 고덕신도시 520만평

▣ 총 7필 지 분양

▣ 건축 허가완료 토목.도로공사완료

1필지(약 200평)

★ 평당 200만

할인 130만

(기타 평택 투자물건)

① 평택시 신장동 (77평) (고덕신도시 5분, 송탄역 5분) 매가 4억

②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53평) 매가 6억

③ 평택시 서정동 (59평) 매가 9억 (건축허가 완료)

④ 평택시 지산동 (1,350만) 매가 27억5천만

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공장부지) (1,380평) 매가 8억2천 (서해안고속도로 5분)

010-6670-9800 010-7384-7800

영광주택 매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완료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

직거래 010-6670-9800

경매교육

1) 이론 실전반▶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기초이론 + 실전

2) 실전 투자반▶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실전투자

3) 경매 평생반▶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경매물건 추천

① 서구 화정동 대주아파트(48평) 감정 2억 → 최저 1억4천

② 광산구 수완동 우미린 (33평) 감정 3억 → 최저 2억1천

③ 서구 쌍촌동 광명하이츠 (상가) 감정 5천9백 → 최저 2천9백

[사무직 (여)경력 구함, 경매 부동산 관심자 환영]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1) 서구 내방동 (건물) 토지:80평 건물:114평 감정:3억6천 → 최저:3억6천

2) 남구 행암동 (1층상가) 효천 대만위 아파트 (주차빌딩) 감정가 1억4천4백 →최저가 1억4천4백

3) 남구 양림동 (주택) 감정:2억6천 7백 → 최저:1억8천7백

4) 나주 성북동 (근린주택) 감정 32억 6천 → 최저 18억 2천

5) 광산구 수완동 (1층 상가) 감정가 9억6천→ 최저가 6억7천

6) 동구 산수동 (상가주택) 감정가 3억5천 → 최저가 3억5천

7) 전북 군산시 평화동 (근린상가) 감정:12억1천 → 최저:4억1천

8) 화순군 남면 사평리 (주유소) 감정가 5억 → 최저가 3억8천

9) 화순 도곡면 천암리 (무인텔) 감정:37억4천 → 최저:20억

10)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 감정가 6억5천 → 최저:2억3천

11) 북구 신안동 (주유소) 토지:232평 건물:114평 감정:14억5천 → 최저:14억5천

A.P.T·주택·공장·토지 (기타)

① 남구 진월동 한신 아파트 (31평) 감정 2억1천2백 → 최저 1억4천8백

② 서구 풍암동 금호타운 감정 1억9천 → 최저 1억 3천

③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36평) 감정 2억9천 → 최저2억

④ 서구 유촌동 버들주공 아파트 (24평) 감정 2억 → 최저 1억 4천

⑤ 북구 운암산교아루렉시안 (34평) 감정 2억5천 → 최저 1억 7천

⑥ 상무지구 갤러리 아파트 (75평) 감정 5억8백 → 최저 3억6천

⑦ 광산구 수완동 대방노블랜드아파트(56평) 감정 4억5천8백 → 최저 4억5천8백

⑧ 서구 마북동 (주택) 감정 1억3천 → 최저 9천1백

⑨ 북구 양산동 (공장) 감정 39억 → 최저 17억6천

⑩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대지) 감정 7백 → 최저 5백

⑪ 전남 목포시 용당동 (숙박시설) 감정 8억3천 → 최저 4억6천

⑫ 전남 영암군 삼호읍 (공장) 감정 14억8천 → 최저 6억6천

010-6670-9800 010-7384-7800